

KIOST 해양과학도서관은 왜 책을 만드는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도서관 출판 사례

조정현 _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 해양과학도서관 이라는 특수성

‘천국’

‘지(知)의 정원’

‘시간을 정복하는 곳’

도서관에 대한 찬사는 많다. 시처럼 아름다운 이 찬사들은 하나의 전제 위에서 유효하다. 그것은 도서관이 책을 모아놓는 곳,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지(知)가 흘러 들어오는 바다 같은 곳이라는 전제이다.

요즘 도서관은 변화하는 추세지만, 출판사에서 만들어진 책을 모아 필요한 사람에게 전해주는 곳이라는 전통적인 개념은 변하지 않았다. 그 옛날 동서고금의 정보를 모아 시간을 정복하려던 고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야망을 요즘의 도서관도 여전히 품고 있다. 사람들은 일본 지식의 거인 다치바나 다카시처럼 지(知)의 정원에 들어서는 심정으로 두근거리며 도서관으로 들어가고, 아르헨티나의 소설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처럼 수많은 정보 속에서 천국을 경험한다.

어떤 이들은 그 찬사가 너무 오래된 것이 아니냐고 되물을 수도 있다. 현대는 인구의 대다수가 문맹이었고, 정보는 차단되었으며, 책이라는 물건 자체가 귀했던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보가 넘치는 현대에도 도서관에 대한 찬사가 유효한 이유는 도서관이 여전히 지(知)에 충실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도서관은 다양한 정보 속에서 옥석을 가리고, 정보 속에서 길을 잃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지도를 건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시대에 따라 지(知)의 보존과 유통에 대해 고민하며 변화하기에 도서관은 여전히 지(知)의 보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도서관은 수동적인 공간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좋은 정보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적극적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책과 정보를 모아놓았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그 책과 정보는 도서관이 아닌 어딘가에 서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말이다. 그것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다. 도서관은 원래 그러한 이유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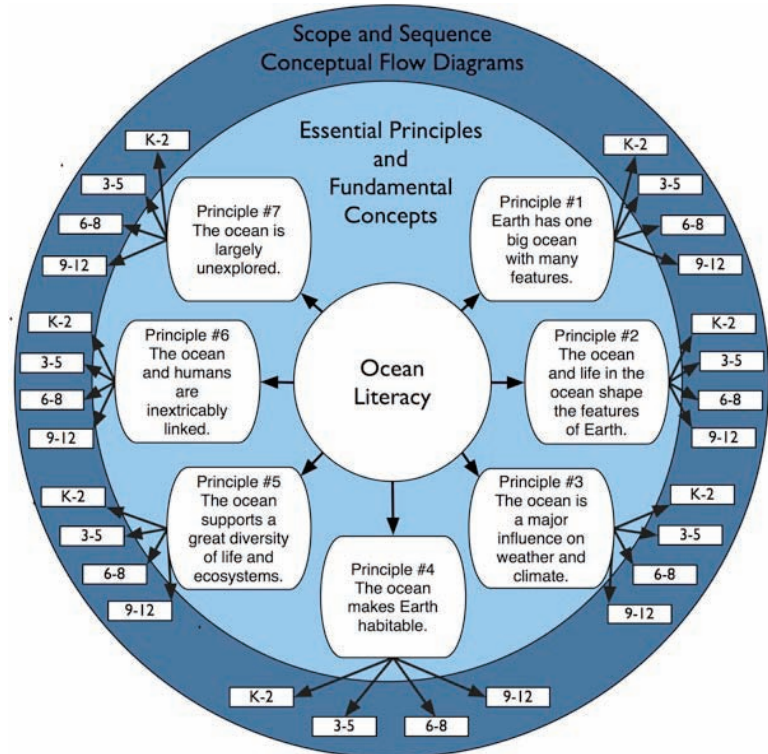
하지만 어떤 도서관은 특별한 곳에 세워지기도 한다. 매 순간 지(知)가 솟아나는, 말하자면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같은 연구기관에.

2. 지(知)에 대한 도서관의 고민

해양과학도서관은 직접 책을 기획하고 출판도 한다. 책을 모아놓던 수동적인 기관이 왜 책을 만드는 적극적인 행위를 시작했는지에 대해 대답을 하려면 해양과학도서관이 갖게 되었던 몇 가지 문제의식을 되짚어 보아야 한다. 그 첫 번째는 해양적 교양에 대한 필요성이다.

70, 3, 98.

흔히 바다를 설명할 때 이 세 가지의 숫자를 활용한다. 바다는 지구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영토보다 더 넓은 해양영토를 가진 반도 국가다. 하지만 인류는 바다의 98% 이상을 모를 뿐 아니라 관심도 적다. 대부분의 인간이 육지에서 터전을 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무관심하기에 바다는 인류의 미래에 너무나 큰 힘을 갖고 있다. 그래서 미래의 가능성을 확보하고 지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많은 나라들이 국민의 해양적 교양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림 1> 미국의 해양교육 개념도

해양적 교양이라는 말은 미국의 해양 교육 목표인 Ocean Literacy를 번역한 말이다. literacy란 문해력을 뜻하기 때문에 언뜻 바다와 연결이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해보면 해양은 읽히기를 기다리고 있는 명작이라고도 할 수 있다. 쉽게 읽을 수는 없지만, 읽고 이해하는 자에게 크나큰 가능성을 열어주는 진정한 책 말이다. 해양의 여러 현상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바다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반대로 인간 자신이 바다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다. 이러한 깨달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있는 국민과 없는 국민의 미래가 전혀 달라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래서 미국과 같은 해양과학 선진국들은 특별한 법을 만들어 정규 교육에 해양적 교양을 높이기 위한 커리큘럼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의 해양교육은 아직 갈 길이 멀다. 교육을 위해서는 지식을 갈무리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것이 널리 퍼져야 한다. 그렇다면 세상이 정보로

넘쳐난다는 이 시대에 해양에 대한 지식은 얼마나 유통될까? 질 좋은 정보의 양을 찾기 위해 해양이라는 키워드만큼 좋은 것도 드물다. 해양에 대한 정보를 찾으려는 사람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쓴 전문적인 정보가 얼마나 없는지 알고 놀라게 될 것이다. 그만큼 해양에 대한 지(知)는 빈약하다.

여기에서 해양과학도서관의 두 번째 문제의식이 시작되었다. 질 좋고 귀한 정보가 흘러가고 있는데, 그것을 갈무리한 책이 없었다. 책이 넘쳐나는 시대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책은 공익적인 면도 있지만, 시장에서 판매되는 재화이기도 하다. 그래서 시장성에 대한 기대가 없는 책들은 시장에 나오기 어렵다. 해양 뿐 아니라, 모든 지식의 원천이라 할 전문 연구 대상에 대한 기초 지식들이 대부분 이러한 상황이다. 하지만 기초지식은 모든 창발성의 재료이며, 그 재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렇다면 해양에 대한 지(知)가 생산되는 곳에서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았다. 책을 재화로서가 아니라 지식으로 온전히 대할 수 있는 기관이 주체가 된다면 해양에 대한 지(知)는 한 곳에 고여 있다가 증발하는 것이 아니라, 더디 가더라도 멀리까지 흘러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것이 해양적 교양을 높이는 첫 걸음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오래 전 옥스퍼드 대학 출판사부터 시작하여 전문적인 내용의 책들(특히 과학 분야)이 대학이나 전문기관에서 출판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다.

3. 미래를 꿈꾸는 해양문고의 시작

모 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해양과학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할 출판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은 어느 특정 시점의 일은 아니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연구자들은 논문집과 보고서는 물론 필요에 따라 외국의 전문적인 도서를 번역하기도 하면서 해양과학기술을 책으로 정리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그리고 해양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이루어낸 성과를 집대성하기 위해 '해양과학총서' 시리즈¹⁾를 기획하여 발간하였다.

1) '해양과학기술의 현재와 미래', '해양과 인간', '해양오염과 지구환경', '해양생물의 세계', '지구환경 변화사와 해저자원', '지속가능한 연안개발', '극지와 인간', '해양바이오', '선박의 이해'

1990년에 초판을 낸 후 현재까지 개정판 작업 중인 시리즈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해양과학기술 전 분야를 다룬 이 책은 이전까지 없었던 해양에 대한 개괄적 지식을 전문가들이 직접 정리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하지만 210mm*300mm의 크기에 성인을 대상으로 한 총서 시리즈는 독자층이 다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다. 이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총서 시리즈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주제를 작게 나눠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모든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책을 고민하였다. 해양과학도서관은 당시 도서출판 전망의 '해양문화문고', 민음사의 '바칼로레아', 전파과학사의 '현대과학신서'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해양이나 지식 시리즈를 면밀히 살펴 사례조사를 마쳤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다룰 수 있는 세부 주제를 발굴하였다. 그리하여 얇은 문고판으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기로 결정하였다.

문고판의 크기는 125mm*188mm로 분량은 100~200쪽 이내, 1차로 50권을 목표로 하였다. 해양과학기술 전반을 다루는 기관인 만큼 각 분야의 전문 연구자들이 도서출판위원이 되어 주제를 선정하고, 기획, 편집, 발간의 전 과정에 도움을 주기로 하였다. 시리즈의 저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원들을 중심으로 하였으나, 외부의 전문가들도 원내 연구원과 공저 형식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 해양의 전 분야를 아우를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해양의 전문 연구 기관에서 발간되는 책인 만큼, 모든 책은 발간되기 전에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게 했다. 전문가의 검토에 따라 원고를 수정하여 전문성을 담보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통해 독자 대상을 넓히면서도 전문성을 놓치지 않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었다.

또, 총서나 전문도서와는 달리, 대중을 대상으로 한 책들은 기존 출판사와 협업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기획하고 직접 원고와 시각자료 등을 책임지는 책이지만, 대중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기존 출판 유통 루트가 있고 대중성에 대한 감각이 있는 출판사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에 여러 출판사 중 (주)도서출판 지성사가 <미래를 꿈꾸는 해양문고> 시리즈의 출판사로 결정이 되었으며, 2007년 이래 꾸준히 시리즈 출판을 함께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리즈가 처음부터 순탄하게 발간되었던 것은 아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원들이 해양과학을 널리 알리고 국민의 해양적 교양을 높여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동감하고 있었지만, 문고 시리즈의 저자로 참여한다는 것은 다른 문

제였다. 연구원들은 모두 자신의 연구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책의 필요성에 공감하더라도 대중을 위한 글쓰기에 부담을 느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각 분야의 출판 주제를 정해도 저자를 찾는 일이 어려웠다.

일반 출판사에서 출판은 원고(초고)가 도착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해양과학도서관은 저자부터 찾아야 했다. 누군지도 모를 저자에게 정체 모를 원고를 요청해야만 하는 어려움에 봉착한 것이다. 해양과학도서관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출판 수요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였다. 수요조사는 간단한 출판 신청서라고 할 수 있는데, 자신이 쓰고 싶은 분야와 주제, 대략의 목차, 개요, 서문 등을 정리한 문서라 할 수 있다.

수요조사를 통해 다행히 출판에 적극적인 전문 연구원들을 알게 되었고, 이들의 작업을 통해 시리즈의 초기 도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림 2〉 '미래를 꿈꾸는 해양문고' 시리즈

도서출판 수요조사서

구분	<input type="checkbox"/> 전문도서 <input type="checkbox"/> 미래를 꿈꾸는 해양문고 <input type="checkbox"/> 과학으로 보는 바다(화보집)		
발행일	<input type="checkbox"/> 2019년 상반기 <input type="checkbox"/> 2019년 하반기 <input type="checkbox"/> 2020년 상반기 <input type="checkbox"/> 2020년 하반기		
신청자 (저자)	소속:	직위:	성명:
	☎:	HP:	☎ :
공저자	소속:	직위:	성명:
	☎:	HP:	☎ :
제목(가제)			
원고량	총면수(P):본문() 그림 및 사진 ()		
키워드 (3개 이하)		분야	ex) 해양생태/공학/심해/에너지
책 소개 (개요)	* 번역서의 경우: 원 저자 및 원 저자 이력, 원 출판사, 출판년도, isbn 기재		
가 목차			
발간 필요성			

신청일 :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4. 과학으로 보는 바다의 시작

‘과학으로 보는 바다’는 사진과 시각자료를 강조한 일종의 화보집으로 기획되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특성 상 가까운 바다는 물론 태평양과 인도양 같은 대양에서 연구가 진행된다. 일반인들이 평생 접하기 힘든 심해 역시 연구의 대상이다. 이 넓고 깊은 바다의 물리적, 지리적, 지질적, 생물학적, 화학적 특징을 탐구하다보니 연구를 수행하면서 얻게 되는 귀한 사진 자료들도 많은 편이다. 게다가 어떤 지식들은 백 마디 말보다 한 장의 사진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에 해양과학도서관은 희귀한 사진을 국민들과 나눌 수 있는 화보집 시리즈를 기획하게 되었다. 사진 자료가 전면배치되는 만큼 203mm*203mm의 판형에 150쪽 내외의 부피, 하드커버로 독자들의 접근성을 더욱 높이고 교육용 부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시리즈도 ‘미래를 꿈꾸는 해양문고’와 마찬가지로 대중에 접근할 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출판사와 협업을 하였으며, 도서출판위원회에서 신청안을 심의하도록 하였다. 전문가 검토를 통한 전문성 또한 담보하였으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직접 연구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이 시리즈에 나온 양질의 사진 자료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사진 데이터베이스 iphoto에 올려 국민들에게 무료로 서비스하기로 하였다.



<그림 3> 과학으로 보는 바다, 제1권 ~ 제8권

5. 해양과학 도서의 성과와 한계

앞서도 말했듯이 해양과학 지식을 널리 알리기 위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노력은 1990년대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대중들을 대상으로 한 출판의 시작을 <미래를 꿈꾸는 해양문고> 시리즈라고 한다면 역사는 2007년부터 시작된다.

2019년 현재 <미래를 꿈꾸는 해양문고> 시리즈는 모두 32권, <과학으로 보는 바다> 시리즈는 8권이 발간되었다. 그동안 이 시리즈들에 참여한 저자들의 수만 100여명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야별로는 물리, 생물, 지질, 화학, 공학, 환경, 기술, 역사, 정책, 교양, 용어 등 다양하다.

<미래를 꿈꾸는 해양문고>와 <과학으로 보는 바다> 시리즈는 해양에 관심이 많은 학생 및 일반인들에게 좋은 안내서가 되고 있으며, 해양교육 시범학교의 교사들도 널리 활용하고 있다. 해양과학 대중화를 위한 첫 번째 시리즈인 <해양과학 총서>는 국내 20여 개 대학의 해양관련 학과에서 교재로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미래를 꿈꾸는 해양문고>와 <과학으로 보는 바다> 시리즈의 50%이상이 '과학기술부 인증 우수 과학도서', '과학창의재단 우수도서', '행복한 아침독서운동본부 추천 우수도서', '세종도서', '대한출판문화협회 올해의 청소년 교양도서' 등 중요한 단체 및 협회, '국민일보', '동아일보' 등 주요 언론의 우수도서로 선정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기도 하였다.



6. 발간을 위한 기관의 노력

해양과학도서관이 본격적으로 출판을 시작한 지 10여 년이 흘렀다. 그동안 모 기관의 정책에 따라 발간이 어려울 때도 있었고, 저자를 찾지 못해 출판을 포기한 주제도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역시 저자를 찾고 저자의 작업을 독려하는 일이었다. 모 기관의 현장 연구자들로 구성된 저자들의 고충은 일반 도서의 저자들의 고충의 몇 배나 된다고 할 수 있다. 저자들은 우선 대중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이겨내야 했다. 주로 논문과 보고서를 쓰던 저자들에게 해양이나 과학기술에 문외한인 사람들을 독자로 상정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글쓰기를 요구하는 셈이었다. 또한 대부분의 일과시간은 물론 밤늦게까지 연구 현장을 지켜야 하는 연구자들이기에 물리적으로 집필 시간을 내는 것도 어려웠다. 대부분의 저자들은 휴일을 반납해가며 이 시리즈의 책을 집필했다. 하지만 이러한 수고에도 불구하고 그 보상은 너무 적었다. 그러므로 이 시리즈의 저자들은 대부분 국민의 해양적 교양을 높이고자 하는 봉사의 마음으로 책을 집필했다고 할 수 있다.

연구자들이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집필을 계속한 이유, 해양과학도서관이 출판을 왜 하느냐는 의아한 시선에도 불구하고 출판을 계속한 이유는 바다의 중요성 때문이다. 미래를 전망하는 전문가 중 바다를 경시하는 사람은 없다. 지구의 미래를 판가름할 환경 이슈의 해법, 그리고 지속적 성장을 위한 잠재력을 가진 마지막 미지의 영역이 바로 바다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선진국일수록 바다를 알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통해 바다 연구를 시작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국민의 관심이 없다면 연구의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해양과학도서관은 모 기관이 생산한 지(知)와 국민을 연결하기 위해 출판을 선택했다. 지식이 아무리 전문적이고 훌륭하다 해도 이를 대중에게 널리 퍼뜨리기 위한 노력이 없다면 대중은 그 지(知)의 존재조차 알 수 없다. 해양과학도서관은 그것을 사상시키지 않기 위해 대중을 위한 책을 기획했다. 그리고 저자들은 책을 통해 대중과 적극적으로 소통했다. 정보는 넘치지만 진짜 가치 있는 정보는 부족한 이 시대에, 독자들은 원하기만 한다면 전문가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쓴 해양 관련 서적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갖고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한 대중 도서는 전 세계적으로도 드물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시리즈들은 그 자체로 가치가 충분하다.

도서관은 아직도 지(知)가 흘러들어가는 바다이기만 한 것일까? 다양한 도서관이 존재하는 현재, 어떤 도서관들은 샘물처럼 지(知)가 솟아나는 곳에 존재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지(知)의 생산과 유통이라는 도서관의 고민이 시작된다. 이는 해양과학도서관뿐 아니라, 전문 지식이 생산되는 곳에 있는 도서관의 공통적인 고민일 수도 있다.

도서관이 모 기관의 전문지식을 출판하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가장 어렵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내부 구성원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다. 연구원들은 전문가들의 사회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 지(知)를 널리 퍼뜨려야 할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한다. 해양과학도서관도 처음에는 저자를 찾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연구자들의 많은 수가 책을 좋아하는 성향이었고, 해양과학기술의 지식이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퍼져야 한다는 생각에는 공감을 했다. 그리고 시리즈가 한 권씩 채워질 때마다 대중과의 소통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았다.

10여 년이 흐른 현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연구자들은 문고 시리즈의 저자가 되는 것에 익숙해진 편이다. 가깝게는 자신의 아이들에게, 멀게는 대중들에게 자신의 연구를 소개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해양과학도서관의 현재 목표는 <미래를 꿈꾸는 해양문고>를 50권까지 만들고 <과학으로 보는 바다>도 더 충실한 시리즈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1차 목표일 뿐이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지(知)를 널리 알리기 위한 해양과학도서관의 노력은 우리나라가 해양강국이 된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다.